



리빙

올해 설 연휴 어떻게



“닷새간의 황금연휴... 설 명절이 다가온다”

차례 비용 4인 가족 기준 30만원선 한우·애플망고 등 선물세트 고급화 귀성 대신 호캉스 즐기는 트렌드

올해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다. 이번주 리빙에서는 주말을 포함해 길게 이어질 설 연휴를 알차게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올 차례상 비용은 30만원선 예상=명절 하면 가장 먼저 준비하는 것이 차례상 차림이다. 올해 제주지역 설 차례상 차림 비용은 4인 가구 기준 30만을 웃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상공회의소는 최근 제주도 지역 전통시장에서 26개 설 제수용품에 대한 가격조사 결과 지난해보다 12.9%(3만4450원) 오른 30만1320원이라고 밝혔다. 과일류가 지난해보다 3.4% 올라 8만2000원, 나물류는 2.8% 하락한 2만9500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육류 및 해산물은 지난해 대비 20.2% 오른 14만190원, 밀가루 등 가공식품류는 22.3% 상승한 4만9630원 선으로 파악됐다. 과일·고기 등 전반적으로 오른 물가에 차례상 차림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수용품 준비는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9만1636원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전국 평균 차례상 차림 비용은 전통시장이 26만5552원, 대형마트는 35만7188원으로 조사됐다. 특히 도라지·고사리 등 나물류는 40% 이상, 소고기는 20% 이상 전통시

장이 저렴했다. 반면 쌀은 대형마트가 17% 이상 저렴했다.

크게 오른 차례상 물가 탓에 밀키트를 이용하는 가정도 늘고 있다. 대형 유통회사와 밀키트 업체 등은 모듬전 세트, 약밥 세트, 갈비찜 등을 앞다퉈 신메뉴로 출시하며 차례상 공략에 나섰다.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다면 간편한 밀키트를 이용해 설 상차림을 준비해 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

▶선물세트는 고급화 바람=코로나19는 명절 선물세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과거보다 고향을 찾는 발길이 줄고, 모이는 가족이 줄어든 대신 주변에 선물하는 선물세트는 고급화 추세이다.

과일의 경우 차례상에 올리는 사과나 배와 같은 전통적 인기품목 대신 애플망고, 사인머스켓 등 이색 과일의 인기가 높다. 한 백화점이 발표한 최근 3주간 매출을 보면 이색 과일 선물세트가 전년 동기 대비 95% 늘었고, 전체 과일 선물세트 매출보다는 30%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우와 위스키, 트러플 오일과 올리브 오일 등 고급 조미료, 제주 육두과 갈치 등 수산물과 같은 고급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늘었고 관련 상품들의 판매도 이번 주부터 본격 시작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명절 대면 만남이 줄어든 만큼 가족과 친지 등 주변인에게 고가의 선물로 대신하는 변화의 바람이 불면서 고가 선물세트에 지갑을 여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편에선 이런 추세가 설 명절 선물에 활용되는 능

수축산물 청탁금지법 가격이 20만원까지 일시상향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새로운 명절 트렌드는 호캉스=최근 직장인 10명 중 5명은 이번 설 연휴에 고향을 방문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 온라인 구직 사이트가 직장인 2044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계획에 대해 설문한 결과 50.6%가 귀성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해 설 연휴 같은 조사 결과보다 14% 증가한 수치다. 또 직장인들은 설 연휴에 평균 38만원을 사용할 것으로 집계됐다. 결혼 여부에 따라 기준 직장인은 50만원, 미혼은 30만원이라고 답했다.

귀성 계획이 없는 이들에게는 ‘호캉스’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번 설 연휴는 주말을 포함하면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5일이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2월 3일과 4일 휴가를 사용하면 최대 9일간의 연휴를 즐길 수 있다.

과거 같았으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이들도 많았겠지만 아쉬운 대로 국내여행이나 호텔에서 즐기는 휴가인 ‘호캉스’를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한 숙박 플랫폼 업체의 조사 결과 연휴 전날인 오는 28일부터 내달 2일까지 호텔 예약 건수는 지난해보다 8.3배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숙박 중 2박 이상 숙박을 하는 경우가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귀성을 포기하고 호캉스를 길게 즐기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영화觀

잘 부탁드립니다

지난 1월 12일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 두 편이 같은 날 한국 극장가를 찾았다. ‘글래디에이터’, ‘텔마와 루이스’, ‘마션’ 등을 연출한 리들리 스콧의 ‘하우스 오브 구찌’와 ‘쥬라기 공원’, ‘라이언 일병 구하기’, ‘마이니리티 리포트’ 등의 작품을 만든 스티븐 스필버그의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가 그 두 작품이다.

1주일 사이에 두 감독의 신작을 극장에서 관람했다. 신뢰와 기대를 너무 크게 마음에 담았던 것일까. 두 편 모두 아쉬웠다. 공교롭게도 두 작품 모두 2시간 30분이 훌쩍 넘는 러닝타임 안에서 두 감독의 이름 만큼이나 유명한 소재들을 다루고 있었다. 스티븐 스필버그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구찌’ 가문의 스토리를, 스티븐 스필버그는 뮤지컬의 클래식으로 불리우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선택했다. 두 편 모두 흠잡을 데 없는 완성도를 지닌 것도 공통점이다. 안정된 연출, 매끄러운 편집 그리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는 훌륭하다.

하지만 흥행 성적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자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관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개봉 2주차에 접어 드는 시점에서 두 작품 모두 국내 관객은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름값에는 못 미치지만 무난한 평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하우스 오브 구찌’에 비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는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 대중성의 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포털 사이트와 멀티 플랫폼의 평점 모두 6점대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다. 이른 바 대중성을 이미 확보한 두 감독들이 작품이 왜 2021년 대중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결과적으로 패션 브랜드 구



영화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찌에 관심이 없어 보이는 리들리 스콧의 영화는 뜨겁고 선명한 내면의 욕망을 다루느라 흥미로운 시각적 재미를 등한시했고 스티븐 스필버그는 원작에 대한 깊은 애정을 표현하느라 동시대의 관객들을 설득할 카드를 준비하지 못했다.

리들리 스콧은 시대극의 외피 안에서 겹겹이 쌓인 인간의 욕망을 벗겨내는 데 탁월한 재주가 있다. 덕분에 촘촘하고 집요하게 인물들을 파고드는 그의 영화들에 늘 감탄해 왔는데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 리들리 스콧의 시선은 다소 기계적이다. 그가 이 작품 속에서 애정을 가지고 탐구한 캐릭터가 있는지 것도 공통점이다. 안정된 연출, 매끄러운 편집 그리고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는 훌륭하다. 하지만 흥행 성적은 기대치를 밑돌고 있다. 자국인 미국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도 관객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개봉 2주차에 접어 드는 시점에서 두 작품 모두 국내 관객은 10만 명이 채 되지 않는다. 이름값에는 못 미치지만 무난한 평작이라는 평가를 받는 ‘하우스 오브 구찌’에 비해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에 대한 관객들의 평가는 심각할 정도로 좋지 않다. 대중성의 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포털 사이트와 멀티 플랫폼의 평점 모두 6점대를 형성하고 있을 정도다. 이른 바 대중성을 이미 확보한 두 감독들이 작품이 왜 2021년 대중들에게 좋지 못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일까.



진명현 독립영화 스튜디오 무브먼트 대표

축 임
CONGRATULATIONS

제8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고희범
(오현고 17회 졸업·한국외국어대학교 졸업)
(前 한겨레신문 대표이사·前 제주시장)

제8대 제주4·3평화재단 이사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오현고등학교 제17회(현성회)
회장 양계림 외 회원 일동

축 임
CONGRATULATIONS

제주시연합청년회장

이승환
(애월읍연합청년회 직전회장)

제주시연합청년회 제15대 회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애월읍연합청년회
회장 이경민 외 회원 일동

축 진
CONGRATULATIONS

부이사관 서기관

좌임철 김성남

부이사관(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과 서기관(제주특별자치도 소상공인·기업과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재제주시용수향우회
회장 이연진 외 회원 일동

축 진
CONGRATULATIONS

제주경찰청 경정

변대식

제주경찰청 경정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전경 340기 동기회 일동